

## 이재 조우인의 필화(筆禍) 사건 작품 연구

권현주\*

### || 차례 ||

- I. 들어가는 말
- II. 필화의 매개가 된 피화(避禍)의 작품
- III. 풍자를 담은 필화(筆禍)의 작품
- IV. 나오는 말

### 【국문초록】

본고는 광해조 이재 조우인이 겪은 필화 사건 소재의 작품에 대한 분석이다. 이재의 가사는 <출새곡(出塞曲)>, <자도사(自悼詞)>, <관동속별곡(關東續別曲)>, <매호별곡(梅湖別曲)> 등 네 편만이 그 내용이 전하며, 본고는 1616년 경성 판관(鏡城判官) 부임을 소재로 한 <출새곡>과 1621년 구금을 소재로 창작한 <자도사>, 그리고 관련 한시작품을 통해 필화의 경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재는 『광해군일기』에서 ‘시를 잘 지어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시로 읊곤 하였다’라고 평가되는 인물이며, 본고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재가 시로 읊은 사건이 필화의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출새곡>과 <형제암>은 피화의 작품이지만, <출새곡>에 나타난 차출에 대한 불만과 <형제암>의 소재가 된 죽음으로 내몰린 광해의 형제들에 대한 기술헌이 필화의 매개가 되었다고 보았다. <직분사. 기소견>과 <제분사승지청벽>, <자도사>는 필화의 작품이며, <직분사. 기소견>과 <제분사승지청벽>은 경운궁과 광해의 조정을 풍자한 작품으로 보았다. 또한, <자도사>는 공간

\*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사.

의 변화와 세태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재가 광해조에 겪은 필화사건과 그 작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이재, 조우인, 필화사건, 출새곡, 자도사

## 1. 들어가는 말

이재 조우인(1561~1628)의 『이재영언』에는 <出塞曲>, <自悼詞>, <關東續別曲>, <梅湖別曲> 등 네 편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sup>1)</sup> 본고는 이 중에서 <출새곡>과 <자도사> 및 관련 한시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재의 필화사건과 그 작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재의 가사는 1960년도에 학계에 알려졌으며,<sup>2)</sup> 가사 작품 전반에 대한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sup>3)</sup> 이재의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 송

1) 1.本書는 頤齋 曹友仁(1561~1625)의 所作인 歌辭 4篇(梅湖別曲, 自悼詞, 關東續別曲, 出塞曲) 및 關東續別曲(續關東別曲)과 出塞曲의 序文을 作者의 後孫이 엮어 놓은 것이다. 金永萬, 「曹友仁의 歌辭集『頤齋詠言』」, 『어문학』 제10집, 한국어문학회, 1963, p.78. 2.<出關詞>의 경우, 가사는 전해지지 않지만, (중략) <題出關詞後>는 『頤齋集』에 남아있다. 金奉姪, 「頤齋 曹友仁 詩歌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6.

2) 高敬植, 「曹頤齋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3; 金永萬, 「曹友仁의 歌辭集『頤齋詠言』」, 『어문학』 제10집, 한국어문학회, 1963, pp.78-97.

3) 최규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온지논총』 제5집, 온지학회, 1999, pp.23-46; 金奉姪, 「頤齋 曹友仁 詩歌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강정호, 「이재(頤齋) 조우인(曹友仁)의 가사문학 연구-<출새곡(出塞曲)>과 <속관동곡(續關東曲)>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11집, 영주어문학회, 2006, pp.73-100; 최현재, 「戀君歌辭 <自悼詞>의 특징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41집, 동양고전학회, 2010, pp.121-148; 이재준, 「이재(頤齋) 조우인(曹友仁)의 가사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42집, 우리어문학

강 정철(鄭澈)의 영향은 항상 언급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재의 매호 복거와 <매호별곡>에 대한 재고찰 및 광해조에 시화(詩禍)에 연루된 인물로 이재와 그의 작품이 연구되기도 하였다.<sup>4)</sup> 특히, 본고의 연구대상인 <출새곡>과 <형제암>은 필화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언급되었던 작품이다.<sup>5)</sup>

이재는 『광해군일기』에서 ‘시를 잘 지어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시로 읊곤 하였다’<sup>6)</sup>라고 평가되는 인물이며, 본고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읊은 시가 필화의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출새곡>은 1616년 경성 판관(鏡城判官) 부임을 소재로 하였으며, <자도사>는 1621년 전후에 구금된 것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출새곡>과 <형제암>은 화를 피하였기에 피화의 작품으로 보았으나, 세대를 비판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필화의 매개가 된 것으로 보았다. 한시 <直分祠. 記所見>과 <題分司承旨廳壁>은 필화의 동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금되어 <자도사>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두 편의 한시 작품과 <자도사>는 모두 광해조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 2012, pp.213-245; 김혜진, 「이재 조우인 가사의 내면의식과 시가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4) 신현웅, 「이재 조우인의 매호 복거와 <매호별곡(梅湖別曲)>의 창작의식」, 『국문학연구』 제35집, 국문학회, 2017, pp.237-243; 김영주, 「詩禍를 통해 본 歷史 現實과 그 反芻 -權輿과 曹友仁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제68집, 동방한문학회, 2016, pp.267-312.

5) 이재의 초기 연구에서는 <형제암>이 발단이 되어 <출새곡>을 창작하였다고 하였고, 김봉선은 ‘<형제암>이 변방부임의 빌미가 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金奉旻, 「頤齋 曹友仁 詩歌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41.

6) 友仁(中略) 且長於詩, 遇事輒詠.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본고는 이재의 <출새곡>과 <형제암>을 필화의 매개가 된 피화의 작품으로 보았으며, 필화의 동인이 된 한시 두 편과 <자도사>는 풍자를 담은 필화의 작품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이재가 가사와 한시를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한 바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재의 가사 작품은 『가사선』을 저본으로 하며, 한시와 그 외의 작품들은 『頤齋先生文集』을 참고하였다.<sup>7)</sup>

## II. 필화의 매개가 된 避禍의 작품

이재의 <출새곡>은 한시 <형제암>과의 관련성 및 필화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던 작품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형제암>을 창작한 후 경성으로 좌천되었다는 의견이 주목받았으며,<sup>8)</sup> 최근에는 경성에 도착한 후 창작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sup>9)</sup> 결론부터 기술하자면, 이재는 경성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며 <출새곡>과 <형제암>은 경성에서 창작되었기에 필화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작품이다. 즉, 두 작품은 다행히 화를 피한 ‘피화’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작품에서 기술된 세태에 대한 불만은 필화의 매

7) 1. 국어국문학회, 『가사선』, 대제각, 1982. 2. 昌寧曹氏 頤齋公派宗會, 『頤齋先生文集』, 상주군, 1990. 3. 이재의 한시는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을 바탕으로 하며, 필자와 의견(번역)이 다를 경우에는 윤문(潤文)을 거쳐 기재하였다.

8) 이러한 해석은 『이재선생문집』 서문에서 이재의 <형제암>을 ‘光海朝 때 宮柳詩의 權譚과 同詩인 頤齋의 兄弟巖詩는 光海가 永昌大君 죽임을 諷刺함이요.’이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昌寧曹氏 頤齋公派宗會, 『頤齋先生文集』, 상주군, 1990, p.62.

9) <형제암>의 경우 변방부임의 빌미가 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金奉姪, 『頤齋 曹友仁 詩歌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41.

개가 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1. 차출과 세태에 대한 비판 : 〈出塞曲〉

택당(澤堂)이 쓴 이재의 <묘지명(墓誌銘)>에는 그가 경성 판관으로 차출되어 간 당시의 기록이 남아 있다. 택당은 이재의 상황을 ‘병신년(1616) 겨울에 다시 경성 판관으로 나가니 시기(時忌)의 안에 있음이라’(丙辰冬. 復出判官鏡城. 中時忌也.)라고 기술한다. 여기서 이재의 경성행을 ‘다시 경성 판관으로 나아갔다’라고 한 것은 이재의 경우 1613년 3월 은계찰방으로 강원도 회양(淮陽)에서 직책을 수행한 바 있으며,<sup>10)</sup> 1616년에는 회양보다 더 북쪽인 경성으로 발령이 나자 조정에서 또 멀어졌기에 이와 같이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기(時忌)는 ‘시론(時論)에 기휘(忌諱)되는 것’ 즉, 당대의 여론에 저촉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1616년 전후로 이재가 당대의 여론에 저촉되었던 사건은 찾아볼 수 없다.<sup>11)</sup> 다만, 1614년 12월 사간원에서 ‘은계도 찰방 조우인은 그 위인이 경망스럽고 일처리가 옳지 못하니, 파직을 명하고 그 대임은 충분히 헤아려 골라 보내소서.’<sup>12)</sup>라고 광해에게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은계찰방직에서 체임(遞任)될 때에는 사간원과의 여론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0) 曹友仁爲銀溪察訪. 『광해군일기』 光海 5年 3月 6日 1613年.

11) 『광해군일기』에는 1615년부터 1618년까지 ‘조우인’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12) 司諫院啓(中略) “銀溪道察訪曹友仁, 爲人躁妄, 處事顛倒, 請命罷職, 其代十分擇送.” 『광해군일기』 光海 6年 12月 25日 1614年.

北方 二十餘州에 鏡城이 門戶려니/ 治兵 牧民을 날을 맞겨 보내시니/ 罔極  
 ्ह 聖恩을 갑플 일이 어려웨라/ 書生 事業은 翰墨인가 너기더니/ 白首 臨  
 邊이 진실노 意外로다/(중략) 淮陽 네 스실 기별만 드렸더니/ 禁闥을 외오  
 두고 謫客은 무슴 죄고/(중략) 눈물을 베끗고 두어 거름 도라서니/ 長安이  
 어디오 玉京이 ㄱ리거다. <출새곡>

<출새곡>의 서두는 경성 판관이 되어 떠나는 이재의 사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재는 자신이 가는 곳이 함경북도 경성이라는 것과 경성이 북방 이십여주(州) 중 문호(門戶)이며 자신의 임무가 치병과 목민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재는 조정을 떠나 경성으로 가게 된 자신의 상황을 지극한 성운을 갚을 길이 어려워졌으며 부정적으로 기술한다. 이는 이재의 부임지가 함경북도의 끝에 위치한 지역이며 문호라는 것과 자신의 상황이 백수(白首)에 임변(臨邊)되었다는 것, 그리고 경성으로 떠나며 ‘장안이 어디오 옥경이 ㄱ리거다’라며 조정에서 떨어진 현실을 나열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書生의 事業은 翰墨’인 줄 알았다는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즉, 자신은 문관이었기에 무관(武官) 직책의 경성행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경성으로의 차출을 축출(逐出)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성 판관에 문관을 임명한 것은 1599년(선조32)의 기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sup>13)</sup> 또한, 『광해군일기』 1611년 7월 기사에서도 ‘북쪽 변방은 왕화가 제대로 미치지도 않는데, 변방의 군민(軍民)들이 무부(武夫)의 손에 시달리고 있어 전부터 변방 수령을 문관으로 교차한 것에 의도가 있었던 일’이라고 기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즉, 변민

13) 북도의 수령은 무신을 쓰는 것이 마땅하나, 경성 판관을 명망이 있는 문관으로 차견하는 것은 그만한 뜻이 있어서입니다. 北道守令, 當用武弁, 而鏡城判官, 必以名官差遣者, 其意有在. 『선조실록』 宣祖 32年 3月 23日 1599年.

들을 위해 무관을 대신하여 문관을 임명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문관 신분으로 경성에 부임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회양 옛 사실’을 기별로만 들었더니 금달(禁闌)을 두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재가 말한 회양의 옛 사실은 한 무제(漢武帝) 때 급암(汲黯)의 고사를 말한다. 급암의 고사는 ‘무제가 급암을 회양(淮陽) 태수(太守)로 임명하지만, 급암은 외직보다 내직에 있으면서 임금의 부족함을 간언하고자 하여 부임하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무제에 의해 급암은 10년 동안 회양 태수로 있다가 임소(任所)에서 죽었다’라는 내용이다.<sup>14)</sup> 급암이 외직보다 내직에 있고자 했다는 사실이 이재가 당면한 현실과 부합되어 이재는 자신의 경성행을 꺼렸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재는 급암이 10년 동안 회양 태수로 있다가 임소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현실을 대입하여 경성으로 떠나가는 자신을 ‘적객’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출새곡>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 ‘遠身 金殿을 뉘 아니 슬허하며 重入 修門을 어이하여 괴필호고’라며 이재는 궁에서 떨어진 자신을 원신(遠身)으로 묘사하고 대궐(修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염려하는 부분과도 연결된다.

그런데, 광해조의 기록을 통해 경성 판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611년 7월 『광해군일기』에서 ‘경성은 바로 병사의 행영으로 편비, 제장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으니만큼, 본부의 판관은 반드시

14) 司憲府啓曰: “北鄙遼遠, 王化不究, 塞上軍民, 重困於武夫之手, 識者憂之. 自前邊倭之以文官交差, 意有所志 在.” 『광해군일기』 光海 3年 7月 23日 1611年.

15) <汲黯列傳>. 『史記』

강명하고 풍력있는 사람을 차송해야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sup>16)</sup>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즉, 경성은 병사가 진을 치고 있고 장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판관은 강직하고 명석해야 하며 위력(威力) 있는 자가 파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1616년 3월 『광해군일기』에서는 ‘함흥 판관, 북청 판관, 경성 판관 이 세 고을은 무관 중에서 용맹과 지략의 재주를 겸비한 인자한 사람으로 엄선하여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sup>17)</sup>라는 내용도 확인된다. 즉, 경성 판관은 무관뿐만 아니라 문관도 임명(任命)될 수 있으며 특히, 강직하고 명석하며 위력이 있고 용맹함과 지략을 가진 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 역시 이러한 인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연구에서 말한 ‘한미한 집안배경에 의한 것’<sup>18)</sup>이 경성행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 역시 확인된다. 특히, 이재는 자신을 적객으로 묘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성으로 떠나는 노정에서 자신의 임무인 치병(治兵)과 목민(牧民)을 제대로 실행하려는 모습에서도 판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大門嶺 너머드러 淸海鎭에 드러오니/ 一道 喉舌이요 南北이 要衝이라/ 信臣 精卒로 利兵을 배퍼시며/ 强弓 勁弩로 要害를 디킴듯/ 百年 升平에 民不 知兵하니/ 重門 待暴를 닐러 므슴 헐리오. <출새곡>

이재는 대문령(함경북도 흥원에 위치)을 넘어 청해진(北靑鎭)을 돌

16) 況鏡城, 乃兵使行營, 偏裨, 諸將咸聚此地, 本府判官, 必以剛明風力之人差送, 庶有所裨益. 『광해군일기』 光海 3年 7月 23日 1611年.

17) 咸興判官, 北靑判官, 鏡城判官此三邑, 以武弁中有勇略才兼字牧之人, 十分擇差以送爲當. 『광해군일기』 光海 8年 3月 1日 1616年.

18) 그가 경성에 부임한 것은 <형제암>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국방에 관해 疏를 올렸던 경력이나 한미한 집안배경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봉선, 위의 논문, p.42.



아보며 이곳이 한 도(道)의 중요한 장소이며 남과 북의 요충지임을 기술한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를 참고할 경우, 함경도는 22개의 적은 고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鎭)이 1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sup>19)</sup> 그만큼 함경도에 대한 방비가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재는 이 중에서도 요충지인 청해진을 지나며 이곳이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것이다. 정예의 병사(兵士)들이 이병(利兵)을 펼쳐놓았고, 강하고 튼튼한 활로 요해(要害)를 지키고 있어 이로 인해 백 년 동안 평안하고 백성들 또한 전쟁을 알지 못한다고 이재는 기술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국경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sup>20)</sup>이 가장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북방인 함경도가 제대로 방비되고 있음을 이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가 청해진의 방비를 기술한 것은 자신의 임무였던 치병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무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재는 경성에 차출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려진 임무는 철저히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경도 성진(城津)을 지나면서 이재는 목민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도 보인다.

城津 設鎭이 形勢는 도커니와/ 亂後 邊民이 膏血이 물나시니/ 廟堂 肉食은 아는가 모릅는가. <출새곡>

19) 한국고전종합DB 참고.

20) 重門 待暴은 “문을 겹으로 설치하고 목탁을 치며 밤에 순찰을 하여 도적에 대비한다.(重門擊柝, 以待暴客.)”라는 것으로 국경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을 비유한다. <繫辭傳下>, 『주역』.

이제는 성진에 진을 세우는 것(設鎭)에 대해 지세(地勢)는 좋은 것 같지만, 왜란(倭亂) 후에 성진 지역 ‘변민의 고혈이 물나’ 버린 상황을 조정에서는 알고 있느냐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 함경북도 성진에 진을 세우는 논의는 1615년 4월 전후에 건의되었던 일이었으며, 조정의 신하들이 성진의 형세와 세태, 진(鎭)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모두 ‘성상께서 재결하소서!’라고 하였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sup>21)</sup> 또한, 『광해군일기』 1617년 4월 8일 기사를 참고하면, 서울로 온 장사(將士)들의 말에 함경도가 기근으로 ‘길가에 굶어죽은 시체가 즐비하여 떠도는 자가 부지기수’<sup>22)</sup>라는 상황이 전한다. 그런데, 이 기사는 ‘호조가 아뢰기를, “함경도에 기근이 든 상황에 대해서는 신들이 일찍이 자세하게 듣지 못하였었습니다.”’<sup>23)</sup>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즉, 이제가 ‘廟堂 肉食은 아논가 모른는가’라고 비판한 것은 실제 변민(飢民)들의 상황은 알지 못한 채 궁(宮)에서 좁은 소견으로 정치하는 자들에 대한 힐난이며, 부디 백성을 위해 나라를 다스려 달라는 간절한 청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목민이라는 조항이

21) 병조가 아뢰기를, “성진에 진을 설치하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기자헌은 의논드리기를(중략) ‘비변사가 그 말에 따라 회계하였을 따름인데, 그 장계의 뜻은 찰방을 혁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찰방을 겸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판중추부사 심희수는 의논드리기를 ‘신은 평소 변경 방비책과 군무를 잘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시 매우 늙어서 더욱 관방의 형세를 알지 못합니다.(중략)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였고, 우의정은 병 때문에 수의하지 못했습니다.” 兵曹啓曰: “城津設鎭事, 議于大臣, 則領議政奇自獻議(中略) ‘備邊司依其言回啓而已, 其狀啓之意, 非革罷察訪也, 乃是兼察訪之意矣. 伏惟上裁.’ 判中樞府事沈喜壽議: ‘臣素昧邊籌軍務, 今復老朽之甚, 尤不識關防形勢.(中略) 伏惟上裁.’ 右議政病不收議.” 『광해군일기』 光海 7年 4月 29日 1615年.

22) 行過將士之入京者, 無不藉藉言之: ‘道殣相望流移者, 不知其幾.’云. 『광해군일기』 光海 9年 4月 8日 1617年.

23) 戶曹啓曰: “咸鏡道飢饉之狀, 臣等未曾詳聞.” 『광해군일기』 光海 9年 4月 8日 1617年.

위에서부터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처럼 이재는 <출새곡>을 통해 경성으로 가게 된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치병과 목민을 제대로 수행함과 동시에 조정을 함께 비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巉岩 鐵嶺을 험튼말 전허마오/ 世道를 보거든 平地가 너기노라. <출새곡>

이재는 깎아지른 듯 가파른 바위가 있는 철령(鐵嶺)을 험하다 말하지 말라고 기술하기도 한다. 세도(世道)와 비교하자면 철령은 평지라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기술하고자 하였던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세상이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지 않음을 철령에 비유하여 소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題出塞曲後>를 참고할 경우, 이재가 경성으로 떠나기 전 恥齋兄이 ‘백광홍 사(詞)는 관서에서 올렸고, 정철의 사는 관동에 퍼졌는데, 북로에 이르러서는 대개 들려오는 것이 없으니,(중략) 뜻을 다해 생각을 펼쳐 자신을 위해 적막한 회포를 위로’해주기를 청하여 <출새곡>을 창작하였다고 한다.<sup>24)</sup> <관서별곡>과 <관동별곡>처럼 북로의 이야기를 들

24) 병진년(1616) 가을에 외람되이 경성으로 부임하는 명을 받아 떠나갈 때 사재에서 恥齋兄에게 인사하니 공이 이에 술을 따르고서 그와 더불어 전별하며 말하였다. “백광홍의 사는 관서에서 올렸고, 정철의 사는 관동에서 퍼졌는데 북로에 이르러서는 대개 들려오는 것이 없다. 고급의 문인제자 중 북방으로 왕래한 자들을 어찌 한 두 가지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럴듯한 것은 여기가 풍류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다. 그대는 나를 위해 뜻을 다해 생각을 펼쳐 한 장가를 제작하여 와서 노형의 적막한 회포를 위로해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丙辰秋. 叨承 鏡城之命. 臨行拜恥齋兄於私第. 公乃酌之酒而與之錢曰. 白詞則鳴於關西. 鄭詞則播於關東. 而至於北路. 則槩無聞焉. 古今文人才子之往來朔方者. 豈可以一二數而

려주기 위하여 경성으로의 노정을 기록하고 경성에서 기생들과의 한 때를 기술하기도 하였지만, <출새곡>을 통해 이제는 노정에서 보고 느낀 세태 역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明時 謫官이 到處의 君恩이로되/(중략)平生 먹은 쓰디 전혀 업다 흘가마  
 닌/時運의 타시런가 命途의 밋엿는가/秦臺 白首의 歲月이 쉬이 가니/楚  
 澤 青蘋은 怨思도 한제이고. <출새곡>

<출새곡>의 마지막은 자신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태를 비판하였어도 자신의 현실은 백수(白首)에 경성으로 부임된 ‘적관’이기에 군은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끊임없이 자신이 군영(戒幕)에 와 있다는 것과 갈관(鵲冠)을 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sup>25)</sup> 시운을 탓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당면한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인다. <출새곡>은 실제 필화사건에 연루되어 창작한 작품은 아니지만, 자신의 차출에 불만을 표하고 또 세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후에 있을 필화사건의 매개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광해의 악행에 대한 통탄: 〈兄弟巖〉

한시 <형제암>은 <출새곡>과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다

---

猶然者, 茲非風流場之一欠事歟. 子其爲我 極意構思, 製爲一長歌而來, 以慰老兄孤寂之懷可也. <題出塞曲後>.

- 25) 슬픈 것은 경성은 곧 북쪽의 군영이다. 비록 기녀와 음악이 있더라도 항상 갈관을 쓴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사는 곳이다. 所恨鏡乃北戎幕也. 雖有妓樂, 而常與鵲弁混處. <題出塞曲後>.

행히 필화를 피한 피화의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형제암>과 <출새곡>은 작품 창작의 시기를 전과 후로 규명하기가 어려운데 두 작품 모두 경성에서 창작되었지만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石以兄弟名    형제라 이름한 바위는  
終古不磨滅    만고에도 마멸치 않는구나  
安得女媧手    어떻게 하면 여와의 솜씨로  
鍊汝補天缺    너를 단련하여 이지러진 하늘을 기울까. <兄弟巖>

澤風曰 觸景寓感 善諷不虐 幸而不入并案 當表而評之. 경치를 보고 감흥을 부쳤으니 잘 풍자하여 모질지 않다 다행히 죄안에 들어가지 않아 곁으로 드러내어 평한다.

<형제암>은 『이재집』에 실려 있으며 제목 아래에 택당이 쓴 세주(細註)를 통해 형제암의 위치가 부령진의 남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6)</sup> 대동여지도를 참고하면 부령은 함경북도 경성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성과 부령 사이에 형제암이 존재한다. <형제암>은 ‘형제’라는 이름의 바위를 소재로 하며, 마멸되지 않는 관계가 형제임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여와의 솜씨로 천결(天缺)을 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술하는데, 여와가 기울어진 하늘을 오색의 돌로 기웠다는 내용을 차용한 것이다. 보천결(補天缺)은 이지러진 하늘을 꿰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늘을 임금으로 보아 임금의 단점을 바로잡는 것<sup>27)</sup> 즉,

26) 澤風曰 在富寧鎮南. 김봉선, 위의 논문, p.41.

27) 목은(牧隱)의 시에서도 보천결(補天缺)이 ‘임금의 결점을 보완’하다는 뜻으로 해석된 것을 볼 수 있다. 彌縫有時補天缺 미봉책으론 때로 임금의 결점 보완하고/ 退讓

어지러운 천하를 바로잡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조가 즉위 한 당시의 『인조실록』 기사를 참고하면, ‘광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영창대군을 몹시 시기하고 모후를 원수처럼 보아 그 시기와 의심이 날로 쌓였다.(중략) 임해군(臨海君)과 영창대군을 해도에 안치하여 죽이고,(중략)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였다. 상의 막내 아우인 능창군(綾昌君) 이전(李佺)도 무고를 입고 죽으니, 원종 대왕이 화병으로 돌아갔다.’<sup>28)</sup>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광해가 영창대군을 매우 시기하였다는 것과 임해군은 1609년 4월,<sup>29)</sup> 영창대군은 1614년 2월,<sup>30)</sup> 그리고 능창군도 1615년 11월,<sup>31)</sup> 광해가 왕위에 있는 동안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제가 형제라는 이름의 바위를 보고 <형제암>을 창작한 것은 만고에도 마멸치 않는 것이 형제라는 것인데, 광해가 이를 저버렸기에 시를 통해 통탄하고 또, 어지러운 천하가 바로설 수 있을지

---

不復稱臣功 겸양하여 다시 신의 공이라 일컫지 않았네. <狂歌行>, 『牧隱集』, 한국고전종합DB.

28) 初光海在東宮, 宣廟有欲易之意, 及嗣位, 深忌永昌大君, 讐視母后, 猜疑日積. 賊臣李爾瞻, 鄭仁弘等, 懲惡其惡, 安置臨海君, 永昌大君于海島而殺之, 族延興府院君金悌男.(王大妃之父也.) 屢起大獄, 殺戮無辜, 上季弟綾昌君 佺, 亦被誣而殞, 元宗大王以憂薨. 『인조실록』 仁祖 1年 3月 13日 1623年.

29) 임해군을 위소에서 죽였다. 임해군이 위장 안에 있을 때 다만 관비 한 사람만이 그 곁에 있으면서 구멍으로 음식을 넣어주었는데, 이때 이르러 수장 이정표가 꺾박하여 독을 마시게 했으나 따르지 않자 드디어 목을 졸라 죽였다. 殺臨海君于圜所. 臨海在圜牆中, 只有一官婢在側, 穴通飲食. 至是守將李廷彪迫以飲毒, 不肯, 遽縊殺之. 『광해군일기』 光海 1年 4月 29日 1609年.

30) 江華府使鄭沆殺永昌大君 璵. 『광해군일기』 光海 6年 2月 10日 1614年.

31) 이전(李佺)을 위리 안치된 곳에서 죽였다.(중략)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그런데 수장은 거짓으로 병이 들었다고 보고하고 곧이어 죽었다고 알리자, 왕이 겉으로 놀라고 괴이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는 넌지시 유도한 것이었다. 殺佺于圜所(中略) 自經死. 守將詐以病聞, 旋告訃, 王佯爲驚怪之狀, 實諷之也. 『광해군일기』 光海 7年 11月 17日 1615年.

에 대한 염려를 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형제암>에 대한 태당의 설명을 참고하면, 이재가 실제 ‘형제암의 경치를 보고 감흥이 일어 시를 창작한 것이며 풍자는 잘 하였지만 모질지 않아 다행히 죄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죄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 기술했던 것은 <형제암>이 죄안에 들어갈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내용을 기술했던 것임을 말한다. 즉, <형제암>은 영창대군의 옥사를 소재로 하였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이 맞으며,<sup>32)</sup> 이에 덧붙이면 영창대군뿐만 아니라 광해조에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형제를 소재로 한 시라는 것이다.

사실 영창대군이 살해된 지 1년 후인 1615년 8월 성주의 이창록(李昌祿)이라는 자가 광해를 횡난하였다가 유생들이 보는 앞에서 추형(追刑)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창록은 글을 한편 지어 소초(疏草)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녔는데 그 내용이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였으니, 아, 이상도 하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에 되었고다.’라는 것이었다.<sup>33)</sup> 결국 이창록은 체포되어 4차 형신할 때에 승복하면서 ‘형을 죽였다는 것은 임해군을 죽인 것을 말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영창대군을 죽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비유하여 쓴 것입니다.’<sup>34)</sup>라고 직고하였다

32) 윤호진, 『澤堂의 頤齋詩 批評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제23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p.164.

33) 이창록이란 자는(중략) ‘간당이 조정에 가득하니 나라를 보전하기 어렵도다. 군자는 어디로 돌아갔나, 소인이 의기양양하도다.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였으니, 아, 이상도 하다. 착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임금이 되었고다.’ 하는 등의 말이 있었다. (중략) 이에 드디어 잡아다가 국문하였다. 李昌祿者(中略) “奸黨滿朝, 國家難保. 君子何歸? 小人揚揚. 弑兄殺弟, 嗚呼異哉! 人之無良, 我以爲君”等語.(中略) 遂拿來推鞠. 『광해군일기』 光海 7年 8月 14日 1615年.

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는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광해가 형과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것과 또 착하지 않은 자가 임금이었다고 비난을 할 경우, 중형을 피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제암>을 피화의 작품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와 같다. 이재가 광해와 그의 형제들을 소재로 시를 지었지만, 죄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화를 피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의 <출새곡>과 <형제암>은 1616년을 전후로 하여 광해와 그의 조정을 비난한 작품이지만 다행히 화를 피하였기에 피화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작품에서 기술된 세태에 대한 비난과 광해에게 죽임을 당한 형제라는 소재는 필화를 입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소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두 작품은 다행히 화를 피한 작품이면서 필화의 매개가 된 작품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III. 풍자를 담은 筆禍의 작품

이재는 한시 <직분사. 기소견>과 <제분사승지청벽>을 지은 후 구금당하게 된다. 필화를 입은 것인데, 이로 인하여 <자도사>를 창작하게 된다.

이재의 구금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광해군일기』를 참고할 경우 1619년 5월 이재는 이미 구금된 상태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허환, 조우인, 박수서 등의 역적들이 구금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34) 四次施爲之際, 服曰: “弑兄, 言殺臨海也: 殺弟, 言殺大君也. 人之無良, 我以爲君, 比而用之也.” 『광해군일기』 光海 7年 8月 14日 1615年.



문하지 못하여 살아나려고 한다'<sup>35)</sup>라는 내용으로 이때 이미 구금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재의 직책은 확인되지 않으며, 1619년 11월 26일에는 '대구부사 조우인을 나포하라'<sup>36)</sup>라는 기사가 있어 이재의 직책은 대구부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택당이 쓴 이재의 <묘지명>을 참고하면, 이재는 신유년(辛酉, 1621)에 사신(詔使)을 맞이하기 위해 제술관(製述官)이 되었고, 서울에 머문지 몇 개월 후에 우연히 벼슬을 겸하여(攝官) 입직하였다가 고궁의 황숙유폐(荒寂幽閉)함을 보고 글을 지었다고 한다.<sup>37)</sup> 택당이 언급한 우연히 벼슬을 겸하였다는 것은 제술관과 함께 분승지(分承旨)의 직책을 맡은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1621년 7월 11일 이재가 분승지로 기록되는 첫 기사(백대형의 상소)를 시작으로 그의 구금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38)</sup> 즉, 1621년 7월 이재는 이미 구금된 상태였으며, 1622년 9월 7일 보방<sup>39)</sup>되었기 때문에 구금의 시기는 약 1년 전후로 보아야 한다.

35) 양사가 비밀리에 합계하기를, “근년 이래로 국운이 불행하여 역적의 옥사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환, 조우인, 박수서, 장의범 등이 옥에 가득히 구금되어 있는데, 단지 오래도록 국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음 속에서 살아나려고 합니다.” 兩司祕密合啓: “近年以來, 國運不幸, 逆獄繼起, 如許喚, 曹友仁, 朴守緒, 張懿範等, 囚繫滿獄, 而只因久未鞫問, 死中求生.” 『광해군일기』 光海 11年 5月 16日 1619年.

36) ‘비밀로 전고하였다. 대구 부사 조우인을 나포하여 오라.’ 以祕密, 傳曰: “大丘府使曹友仁拿來.” 『광해군일기』 光海 11年 11月 26日 1619年.

37) 辛酉之迎詔使. 以製述官被徵. 始拜加階之命.(中略) 公留京數月. 偶攝官入直. 見故宮荒寂幽閉. 作感懷一章.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澤堂先生別集』 卷之六.

38) 분승지 조우인이 서궁에 숙직하며 시를 지어 풍자할 적에, 박수서가 참여하여 안 내용을 말하였다. 告分承旨曹友仁直宿西宮, 作詩, 譏刺朴守緒與知之由.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7月 11日 1621年.

39) “曹友仁(中略) 保放.”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9月 7日 1622年.

하지만, 1619년 5월 이재가 구금되었다는 기사에서 그와 나란히 언급되었던 ‘박수서’는 이재의 필화사건에 연루되어,<sup>40)</sup> 1622년 함께 친국(親鞫)을 당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1)</sup> 그렇다면 이재는 박수서와 함께 1619년 5월에 필화로 인해 이미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이재는 1619년 5월 이전에 구금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 백대형의 상소로 인해 그의 구금이 알려졌고, 1622년 보방되어 약 3년 이상 구금당하였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재의 구금은 한시 <직분사. 기소견>, <제분사승지청벽>이 동인이 된다.

### 1. 상반된 공간(宮)에 대한 풍자: <直分祠. 記所見>, <題分司承旨廳壁>

택당이 기술한 이재의 <묘지명>에는 필화 시의 창작 동인이 나타난다. ‘신유년(1621)에 입직하였다가 고궁이 황폐화되고 적막하게 유폐된 것을 보고 감회(感懷)로 인해 글을 지었고 蕭條物色 陟降英靈 등의 표현이 있었으며, 벽에 쓴 절구는 글은 완곡하지만 풍자하는 뜻으로 인해 듣는 이들이 가히 느낄 만하다.’<sup>42)</sup>라는 것이었다. 감회로 지은 글(一章)

40) 분병조 참의 박수서는 흥측한 시를 직접 보고서도 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일이 발각되자 우인과 함께 다른 시로 개작하여 스스로 위를 속이고 악을 도운 죄를 범하였으니, (우인과 수서를 함께 잡아다 국문하여 역적을 토벌하는 법을 중히 하소서.) 分兵曹參議朴守緒, 參見凶詩, 非但不告, 及其事覺, 乃與友仁, 改作他詩, 自犯罔上黨惡之罪, 請竝拿鞠(友仁, 守緒, 以重討逆之典).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7月 14日 1621年.

41) 조우인, 박수서를 대궐 뜰에서 친국하였다. 親鞫曹友仁, 朴守緒于殿庭.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42) 辛酉(중략) 偶攝官入直. 見故宮荒寂幽閉. 作感懷一章. 有蕭條物色陟降英靈等語. 又有題壁絕句. 竝詞婉意諷. 聽者可感.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澤堂先生別

은 <직분사. 기소견>이며, 벽에 쓴 절구는 <제분사승지청벽>을 말한다. 즉, 이재는 고궁이 황폐하게 유폐됨을 보고 시를 지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궁은 경운궁(慶運宮)을 의미한다. 경운궁은 ‘임진왜란 때 궁궐이 불타버리자 선조가 돌아온 뒤 임시로 정릉동의 민간 백성 집에 거처하면서 경운궁이라 일렀으며, 그 뒤에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인목을)서궁(西宮)이라 일컬었다.’<sup>43)</sup>라고 기록된 장소이다. 즉, 임진왜란 후에는 선조가 거처했던 곳이며, 1611년 10월에는 광해가 대비전을 옮겨가게 한 장소가 경운궁인 것이다.<sup>44)</sup>

인목대비는 영창대군의 모후(母后)로 1618년 1월 30일 ‘대비에서 서궁’이 된다.<sup>45)</sup> ‘존호(尊號)를 낮추고 본국의 존호를 삭제 당하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역적의 괴수, 자신은 역모에 가담하였으며, 아들은 역적의 무리들에 의해 추대’<sup>46)</sup>되었다는 것 등이 인목대비를 폄손(貶損)하는 절목(節目)이었다.<sup>47)</sup> 『택당집』을 참고하면, 이재가 경운궁에서 숙직할 때 두 작품의 한시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48)</sup> 1622년 이재가 신문

集』卷之六.

43) 初壬辰之亂, 宮闕灰燼, 宣廟回鑾之後, 權御于貞陵洞間閭家舍, 謂之慶運宮. 後光海幽閉大妃, 稱以西宮. 『인조실록』 仁祖 1年 7月 12日 1623年.

44) 전교하였다. “대비전은 마땅히 경운궁으로 다시 옮겨가야 할 것이다. 다음 달 11일로 퇴정하도록 해조에 이르라.” 傳曰: “大妃殿, 當還移慶運宮. 以來月十一日退定事, 言于該曹.” 『광해군일기』 光海 3年 10月 28日 1611年.

45) 去大妃二字, 稱西宮. 『광해군일기』 光海 10年 1月 30日 1618年.

46) 貶尊號, 削前上本國尊號(中略) 父爲逆魁, 身與逆謀, 子爲逆徒所推戴, 既自絕於宗廟, 身歿之後, 舉國上下不舉哀, 無服, 不得入廟. 『광해군일기』 光海 10年 1月 30日 1618年.

47) 지금 이후로는 단지 서궁이라고만 칭하고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는 폐(廢)라는 글자를 거론하지 말아 사온과 의리 모두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 今後只稱西宮, 而去大妃之號. 勿復以廢字舉論, 使恩義兩全. 『광해군일기』 光海 10年 1月 28日 1618年.

(訊問) 당하였을 때의 기사에서는 ‘이재가 공초하기를 지난날 선조(先朝) 때에는 거주서로서 경운궁에 드나들었다. 이제 15, 6년이 지난 뒤에 다시 와서 숙위하게 되니, 보이는 것이 황량하였기 때문에 슬픈 생각이 들어 이 시를 지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sup>49)</sup>라고 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즉, 이재는 선조가 거쳐하였던 경운궁에 서궁(인목)이 유폐된 현실을 당면한 후 자신의 감회를 글로 표현하고, 또 벽에 시를 썼기 때문에 필화를 입은 것이다. 그런데 두 작품의 한시는 각각 상반된 공간에 대해 풍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橫廊寂莫鳥聲哀 | 고요한 행랑(行廊)에 새 우는 소리만 슬픈데,    |
| 晴晝空庭掩草萊 | 맑은 대낮의 빈 뜰은 우거진 풀에 덮였다네.(중략) |
| 燕尋舊主投簾隙 | 제비는 옛 주인 찾아 주렴 틈에 날아들고,      |
| 蝶趁殘花戲砌隈 | 나비는 지는 꽃 따라와 섬돌 가에 나부끼네.     |
| 水澗銅龍宮漏絕 | 동룡에는 물 말라 물 떨어지는 소리 끊겨,      |
| 香銷金鴨篆灰堆 | 향로에는 향불이 사라지고 재만 쌓였네.        |
| 蕭條物色同南內 | 쓸쓸한 물색은 남내(南內)와 같은데,         |
| 陟降英靈泣夜臺 | 오르내리는 영령은 야대(저승)에서 슬피 우네.    |
| 白髮孤臣潛下淚 | 흰 머리 고신(孤臣)은 몰래 눈물을 흘리며,     |
| 不堪萱草滿堦栽 | 원추리 우거진 뜰에서 슬픔을 참지 못하겠네.     |

〈直分司. 記所見〉

48) 1.偶攝官入直. 見故宮荒寂幽閉. 作感懷一章.(中略) 又有題辟絕句.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澤堂先生別集』 卷之六. 2.그가 분승지로서 경운궁에서 직속할 때에 칠언 절구를 지어 책자에 적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以分承旨, 直宿慶運宮, 作七言絕句, 題于冊子曰.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49) 友仁臨訊供曰: “昔在先朝, 以假注書出入慶運宮矣. 今於十五六年後, 復來宿衛, 所見荒涼, 故竊懷悲感, 而爲此詩, 豈有他意?”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이재는 적막한 고궁에 새 소리만 슬프다고 말한다.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뜰은 비어있고 우거진 풀에 덮여 있다고 기술하여, 서궁이 윤패된 곳에 더 이상 찾아오는 이가 없음을 묘사한다. 광해가 경운궁을 기찰(譏察)하라고 명한 것은 1615년 5월부터였으며,<sup>50)</sup>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운궁 담장 밖에 포도대장을 신설하고 많은 군사를 인솔하여 각별히 굳게 지키고 기찰하며, 궁성 밖의 호위와 기찰도 엄밀하게 하라.’<sup>51)</sup>는 등의 명을 내려 경운궁을 감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618년 1월 인목대비가 서궁이 되던 당시에는 ‘궁궐 담을 올려 쌓고 파수대를 설치한 다음 무사를 시켜 수직(守直)하게 하라’<sup>52)</sup>라는 명을 내린 것도 확인된다. 경운궁의 담을 쌓아 올려 인목대비를 철저히 유폐시킨 것이다.

1622년 4월 『광해군일기』를 참고하면, ‘왕이 내관을 보내어 대비전에 문안하였다. 경운궁에 폐기시켜 둔 채 이를 서궁이라 하고 내외를 단절시켜 놓은 지 9년이나 되었다.’라는 내용도 확인된다. 인목대비는 오랜 기간 동안 경운궁에 윤패되었으며, 단절과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당 역시 이재가 이 시를 지은 상황에 대해 ‘당시 장추(長秋, 왕후의 궁전)의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분정원을 설치하여 숙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감금(監禁)한 것’<sup>53)</sup>이었다고 기술

50) 또 전교하였다. “경운궁에 헌부가 입직할 때까지(중략) 잡인을 엄금하고 대문을 닫아걸고 밤낮으로 기찰하게 하라.” 又傳曰: “慶運宮憲府入直間(中略) 雜人嚴禁, 閉門晝夜譏察.” 『광해군일기』 光海 7年 5月 25日 1615年.

51) 傳曰: “慶運宮牆外, 新設捕盜大將, 多率軍士, 各別堅守譏察, 宮城外扈衛譏察, 亦嚴密爲之.” 『광해군일기』 光海 11年 4月 21日 1619年.

52) 仍進築宮牆設堡, 令武士守直. 『광해군일기』 光海 10年 1月 30日 1618年.

53) 時長秋錮門. 猶設分院. 名爲宿衛. 而實監禁也.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澤堂先生別集』 卷之六.

한 바 있다. 즉, <직분사. 기소견>에서 묘사된 경운궁은 더 이상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고, 옛 주인을 찾아온 제비와 나비만이 희롱하는 공간으로 풍자되고 있는 것이다.

동룡(銅龍)에 물이 말라 물 떨어지는 소리가 끊어졌다는 것과 향로에 향불 대신 재만 쌓였다는 것은 선조가 없는 조정의 시간도 멈추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더 이상 선조가 있던 예전의 경운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운궁의 쓸쓸함은 당 현종이 만년에 거처했던 흥경궁(興慶宮)과 같은 처지이며,<sup>54)</sup> 흰머리의 고신(孤臣)인 이재는 선조가 떠나고 인목대비가 유배된 곳을 바라보며 슬픔을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경운궁의 현실을 묘사한다.

택당은 이재가 이 시에 쓸쓸한 물색(蕭條物色)과 오르내리는 영령(陟降英靈) 등으로 경운궁을 표현하였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실제 『이재집』의 원문을 살펴보면<sup>55)</sup> ‘陟降’과 ‘英靈’ 사이에 빈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영령이 이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재가 시로 인해 필화를 입은 것은 선조의 영령이 오르내린다는 표현도 크게 작용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재가 <직분사. 기소견>에서 묘사한 경운궁의 쓸쓸함은 반첩여(班婕妤)가 <자도부(自悼賦)><sup>56)</sup>에서 묘사한 장신궁(長信宮)의 모

54) 김혜진, 「이재 조우인 가사의 내면의식과 시가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p.10.

55) 昌寧曹氏 頤齋公派宗會, 『頤齋先生文集』, 상주군, 1990, p.340.

56) 조비연 자매는 교만하고 질투심이 강했다. 반첩여는 언젠가는 위험한 일을 당할까 걱정하여 장신궁에서 태후를 모시겠다고 요청하니 천자가 그 요청을 허여해주었다. 그러나 반첩여는 물러나 동궁에 살게 되어 부를 짓고 자신의 운명을 서글퍼하였다. 그 부는 이러하다. 趙氏姊弟驕妒, 婕妤恐久見危. 求共養太后長信宮. 上許焉

습과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반첩여는 장신궁의 상황을 ‘몸을 궁중에 감추니 고요하고도 맑음이며, 정문은 닫혔고 작은 문은 빗장이 걸렸네. 화려한 궁전에는 먼지가 앉고 옥계에는 이끼가 끼었도다. 안뜰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푸른 풀이 자라난다.’<sup>57)</sup>라고 한 바 있다. 아마도 이재는 조비연(趙飛燕)의 참소로 폐위된 허태후(許太后)와 그녀를 모시는 반첩여의 상황이 쓸쓸한 경운궁에서 숙직하며 서궁을 안타까워하는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즉, 이재는 경운궁의 황폐한 현실을 풍자하고자 <직분사. 기소견>을 창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재는 분승정원 벽에 절구시 <제분사승지청벽>을 쓰기도 하였다.<sup>58)</sup>

|         |                             |
|---------|-----------------------------|
| 欲承無旨可能承 | 받들려고 해도 전지(傳旨)가 없어 받을 수 없어, |
| 承旨華御底處徵 | 승지(承旨)의 좋은 직책 어느 곳에서 시행하고,  |
| 坐到黃昏簾影黑 | 어느덧 황혼에 이르러 주렴 그림자 짙어지니     |
| 且看蝙蝠撲飛蠅 | 박쥐가 날아다니며 파리를 치는 것만 보인다네.   |

〈題分司承旨廳壁〉

이재는 <제분사승지청벽>에서 ‘承’이라는 한자어를 반복하여 자신의 상황을 기술한다. 받들려고 해도(承) 전지가 없어 받을 수 없는(無旨可能承) 상황에서 지금은 승지가(承旨)가 되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즉, 좋은 직책에 올랐지만

婕妤退處東宮。作賦自傷悼。其辭曰。〈外戚傳下〉, 『漢書』.

57) 潛玄宮兮幽以清。應門閉兮禁闔局。華殿塵兮玉階勞。中庭萋兮綠草生。〈外戚傳下〉, 『漢書』.

58) 분승정원이 아뢰기를, “조우인이 손수 쓴 시귀가 지금까지 본원의 벽에 있습니다.” 分承政院啓曰: “友仁手書之詩, 今在院壁.”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9月 22日 1621年.

더 이상 선조가 존재하지 않기에 승지의 직책을 쓸 곳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광해는 이재가 만들어야 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황혼녘에 앉아 박쥐가 파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일찍이 서거정(徐居正)은 <편복부(蝙蝠賦)>에서 박쥐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다. ‘쥐의 몸의 새의 날개로 형상이 괴이하고 종적(蹤迹)이 음침하고 창황하며 밤에만 날뛰고, 큰 집(廈屋)에 슬그머니 의지(潛依)하며 형적이 괴기하여 소인과 같다’라고 하였으며, ‘파리 역시 흑백을 어지럽히는 존재이기에 박쥐를 책망하지 않는다.’<sup>59)</sup>라고 하였다. ‘흑백을 어지럽히다’는 것은 소인들이 자신의 죄를 다른 이에게 무고(誣告)할 때 썼던 표현이다.<sup>60)</sup> 그런데, <편복부>에서 서거정이 박쥐와 파리가 비슷한 존재라고 해석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재 역시 광해의 조정을 비판하기 위해 박쥐가 날아다니며 파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서거정의 부(賦)를 참고하면 박쥐는 큰 집(朝廷)에 슬그머니 의지하는 소인이며, 파리는 자신의 죄를 남에

59) 粵茲翩翩之蝙蝠兮 蜚蜚 나는 박쥐야/ 吾不知其何物也 너는 대관절 무엇이나/ 身鼠而翼鳥兮 쥐 몸에 새 날개/ 何形質之怪奇而難狀也 그 형상 기괴한지고/ (중략) 又何用夫見朝陽而乃伏兮 또 왜 아침별을 보고는 숨었다가/ 隨大陰而自得也哉 밤에만 날뛰느냐/ (중략) 尋廈屋而潛依 큰 집에 슬그머니 의지하니/ 曰茲形跡之詭秘兮 그 형적이 괴기하여/ 甘與小人而同歸 소인과 비슷하다./ (중략) 蠅亂黑白 파리는 흑백을 어지럽히고/ (중략) 於蝙蝠乎何責 박쥐야, 내가 왜 너를 구태어 책망하랴. <蝙蝠賦>, 『四佳集』 卷之一.

60) 홍공·석현·史高는 서로 봉당을 짓고 결탁하여 政機를 독차지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봉당’이며 ‘권력을 전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공과 석현 등이 이 죄명에 맞는 실정을 자신들이 갖고 있으면서 도리어 소망지 등을 이 죄명으로 무고하였으니, 간사한 소인이 흑백을 뒤바꾼 것이 대개 이와 같습니다. 恭·顯·史高가 交相朋比하여 專執政機하니 是乃所謂朋黨·擅權者라 恭·顯 등이 有其實而誣望之等以此名하니 姦邪小人之 質亂黑白이 大抵如此라. 『大學衍義』 卷18.



게 무고하는 소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쥐와 파리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이재가 승지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태당이 이 시에 대해 ‘글은 완곡하지만 풍자하는 뜻’이 있다고 한 것은 아마도 이재가 광해의 조정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광해의 조정은 받들만한 자는 없고 박쥐와 파리만 날아다니는 황폐해진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태당은 이재의 시에 대해 ‘듣는 이들이 가히 느낄 만하다.’라고 하였다. 1622년 6월 『광해군일기』를 참고할 경우, 이재가 신문을 당하며 선조가 기거하던 궁이 황량하여 시를 지은 것이라고 하자 ‘이 때에 모시고 앉아 있던 구신(舊臣)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머리를 숙인 채 기색이 굳어 있었다.’<sup>61)</sup>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태당이 말한 듣는 이들이 웅당 느낄 만하다는 것은 선조의 신하였던 자들은 이재의 심정과 풍자를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재는 <직분사. 기소견>을 통해 선조의 거처였던 경운궁에 서궁이 유폐된 현실을 풍자하였으며, <제분사승지청벽>을 통해서도 광해의 조정이 박쥐와 파리만 남은 황폐해진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풍자하였다. 두 작품의 한시로 인해 이재는 필화를 입게 된다. 이재의 한 시에 대해 조정에서는 ‘이재는 본디 흥측하고 패역스런 사람으로서(중략) 본직을 맡아 서궁에 입직했을 때에 회포를 읊은 시는 글자마다 거슬리는 말이며 구절마다 흥측한 내용’<sup>62)</sup>을 기술하였다고 평하였으며, 관학 유생들 역시 ‘이재의 흥측한 시는 대역(大逆)을 범한 말’이라고 하

61) 時, 舊臣侍坐者, 聞其言, 皆低首沮色.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62) 分承旨曹友仁, 本以兇邪悖逆之人.(中略) 及忝本職, 入直西宮, 述懷作詩, 字字逆語, 句句兇辭.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7月 14日 1621年.

였다.<sup>63)</sup> 인목대비가 윤패된 것과 광해의 조정을 비판하고 풍자할 경우  
흥측하고 패역스러운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공간의 변화와 조정에 대한 풍자: 〈自悼詞〉

이재의 구금이 확인된 것은 1619년 5월이었지만, 광해는 이재의 친국  
(親鞫)을 계속 연기하다가 1622년 6월이 되어서야 그의 죄를 논하기 시  
작한다.<sup>64)</sup> 약 3년 이상 구금된 후 죄를 논하게 된 것이다. 이재의 <자  
도사>는 정확한 창작시기는 알 수 없으나 필화를 당한 이재의 심정을  
기술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자도사>는 이재가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화자가 거처  
하는 공간에 따라 화자와 임, 화자와 임 사이에 존재하는 적대자(敵對  
者)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향한 一片丹心 하늘의 티나시니/(중략) 이임 만느비와 섬길일 생각흐니/  
紅顔을 밋자흐니 盛色이 몇더지며/ 造物이 多猜흐니 鴛鴦이 妬恨호고/  
(중략) 鴛鴦 機上의 鳳凰紋 노화짜니/(중략) 말나 지어늬면 帝躬을 쓰리려  
니/ 님은 모르셔도 나눈임을 미더이셔/ 早晚 佳期를 손고펴 기드리니/ 香  
閨 歲月은 물흐르듯 지나간다/(중략) 五雲 深處의 龍機신덕 바라보니/ 霧  
閣 雲窓이 千里萬里 隔려셔라. <자도사>

63) 友仁兇謀 詩之作, 語犯大逆.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7月 13日 1621年.

64) 1. 함사하여 조우인과 박수서를 전일처럼 논계하니, 답하기를, “의논하여 처리하도  
록 하겠으니,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하였다. 合司友仁 守緒如前論啓. 答曰: “當爲  
議處, 勿爲煩擾.”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7月 16日 1621年. 2. 조우인, 박수서를  
대궐 뜰에서 친국하였다. 親鞫曹友仁, 朴守緒于殿庭. 『광해군일기』 光海 14年 6月  
22日 1622年.

<자도사>에서 화자가 처음으로 거쳐하는 공간은 ‘향규(香閣)’로 묘사되는 곳이다. 화자와 임의 관계는 화자가 일편단심을 증명하는 대상이 임이며, 임에 대한 마음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기에 화자는 오로지 임을 향해있다. 하지만, 화자는 아직 임을 모셔본 적이 없으며, 임을 만나 뵙고 섬길 일을 생각하지만 자신을 사랑해줄지 기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만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자와 임 사이에는 성색(盛色)으로 묘사되는 적대자가 존재한다. 화자는 자신의 홍안(紅顏)을 믿으려 하지만, 임 주변의 성색과 조물이 시기하는 상황임을 묘사하여 임과 자신의 관계가 쉽게 가까워질 수 없음을 예상하게 한다. 그런데, 향규에서의 화자는 ‘봉황문(鳳凰紋)’을 잘 짜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 따라서 화자가 마음을 먹으면 제궁(帝躬)을 끝 수 있음에도 임을 믿으며 가기(佳期)를 기다리는 상태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의 생각과는 달리 향규에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임이 있는 곳은 ‘五雲 深處’로 천리만리 가려져 만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 즉, 향규라는 공간에 거쳐하는 화자는 홍안에 봉황문을 짜는 능력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임을 동경(憧憬)하고 있으며 임과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향규에서 거쳐하고 있는 화자를 이재로 묘사하자면, 이재는 아직 광해를 모시지 않은 상태이며, 좋은 때(佳期)가 오면 광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광해의 주변은 자신보다 더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 가려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재는 광해를 만나지 못하였고 만날 수도 없다. 이재가 <자도사>의 첫 부분에서 자신이 거쳐하고 있는 곳을 향규라고 한 것은 그래도 아직은 광해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因緣이 업지안여 하늘이 아라신가/ 一隻 靑鸞으로 廣寒宮 ㄴ라올나/ 듯고  
 못되던님 천노치 잠간비니/ 님이 잇썬이라 반갑기를 가을흘가/ 이리 뵈  
 읊고 다시뵈일 생각하니/ 三千 粉黛는 朝暮에 되셔시며/ 六宮 嬋娟은 左右  
 에 버러시니/ 羞澁흔 殘粧을 어딘가 바를비며/ 齟齬흔 態度을 놀드려 자랑  
 흘교. <자도사>

두 번째 공간은 광한궁(廣寒宮)으로 화자는 한 쌍의 청란으로 이곳에  
 날아오르게 된다. 그리고 결국 듣고도 못 보았던 임을 만나게 되는데,  
 임에 대한 일방적인 동경이 광한궁에서는 잠간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마음이 일방적인 것이 아  
 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잠간’의 만남을 인연이 없지 않아 만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임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지만, 화자와  
 임 사이의 적대자는 조금의 시간도 화자에게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아  
 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좌우에서 임을 모시는 존재로 변한다.

그런데 광한궁에서 화자는 수습한 잔장(殘粧)에 저어(齟齬)한 태도  
 를 지닌 인물로 점점 초라한 행색이 되는 반면, 적대자는 삼천 분대(粉  
 黛)와 육궁의 선연(嬋娟)으로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묘사된다. 화자와  
 임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커질수록 화자와  
 적대자의 모습은 더욱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화자와 임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적대자의 존재는 점점 강해져 화자가 넘어서 수 없는 존  
 재가 될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광한궁에 거처하는 것으로 설정된 화자는 이제가 직책을 얻어 궁으  
 로 나아간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광한궁이 한 쌍의 청란을 타야 날아  
 오를 수 있는 장소로 묘사된 것은 그만큼 광해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 혹은 한 쌍의 청란처럼 광해와 이제가 사이좋은 군신  
 관계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광한궁에서

잠깐 만난 광해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기약하지만, 광해는 많은 신하들에 둘러싸여 그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아마도 광한궁은 이재에게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면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은 곳이라 할 수 있다.

玉京을 여회옵고 下界에 내려오니/(중략) 空闊 十年에 隻影을 버들삼고/  
(중략) 님은 님이라 날을어이 브리신고/(중략) 과연 님이 전혀어니 브  
리실스/(중략) 님의 消息을 반가이 듯관제고/ 多年 허튼머리 트리터 지버곳  
고/ 雙臉 啼痕을 분뻘도 아니미러/ 먼길 머다안나 허위허위 드러오니/ 그리  
던 얼굴을 보듯마듯 하야이셔/ 숨쭈즌 새옴은 어이혀여 혼단말고/ 萋萋를  
빠내야 貝錦을 밍그는듯/ 玉上 青蠅이 온갖허물 지어내니/ 님몸에 싸히죄  
는 그지마이 업거니와/ 天日이 在上하니 님이짐작 아니실가. <자도사>

결국 화자는 광한궁을 떠나 하계로 내려와 공규(空闕)에서 10년을 버티며 입을 원망하고 또 그리워한다. 좋은 때가 돌아오면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기다리다 드디어 임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지만, 역시나 임은 ‘그리던 얼굴을 보듯마듯’하는 모습으로 화자를 대한다. 화자에 대한 임의 태도가 상당히 일관적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임은 화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공규에서 묘사되는 적대자는 심술궂은 시기로 ‘萋萋를 빠내야 貝錦을 밍그는’ 행동을 하며 온갖 허물을 지어내기까지 한다. 화자는 이 존재를 ‘玉上 青蠅’이라고 일컫는데, 청승은 군자에게 참소(讒訴)하고 끝내 나라를 교란(交亂)시키는 존재로 중상(中傷)하는 자를 비유할 때 많이 쓰인다.<sup>65)</sup> 향규와 광한궁에서는 존재만 나타내었던 적대자가 화자

65) 앵앵거리는 파리가, 울타리에 앉았다. 화락한 군자는, 참소하는 말을 믿지 말지 어다. 앵앵거리는 파리가 가시나무에 앉았다. 참소하는 사람이 끝이 없어, 온 나

가 공규에 기거하자 허물까지 지어내어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광한궁에서 하계로 내려온 공간을 공규라고 묘사한 것은 ‘향(香)’마저 사라진 공간이 되었기에 이를 풍자하고자 이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도사>에서 공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와 임, 적대자의 상황을 다르게 기술한 것은 아마도 화자의 상황과 상반되는 적대자의 태도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규에 거처하는 이재는 광해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필화를 입은 상태로도 볼 수 있다. ‘青蠅이 온갖허물’을 지어내는 행동은 ‘서궁의 유폐를 시로 지은 죄’ 외에 이재가 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조우인은(중략) 일생 동안 한 것이 역적 정온(鄭蘊)을 구원하고 어진 스승들을 모욕하는 일뿐이었습니다.’<sup>66)</sup> 등의 실제가 아닌 일들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이재는 이러한 상황을 억울함으로 풀 어쓰지 않고 청승이 허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인 이재는 그럼에도 천일(天日)이 하늘에 있으니 임이 짐작하 실 것이라며, 광해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화자는 자신을 반첩여(班婕妤)의 상황에 대입하여 자신이 당면한 현실을 기술한다.

誓海 盟山을 첫말슴 미뎃더니/(중략) 옥궂튼 열구를 외오두고 그리눈고/  
(중략) 長門 咫尺이 언마나 가렷관디/ 薄行 劉郎은 꿈의도 아니뵈여/ 昭陽

라를 교란시키도다. 營營青蠅 止于樊 豈弟君子 無信讒言 營營青蠅 止于棘 讒人罔極 交亂四國. 『시경(詩經)』, 소아(小雅), <青蠅>.

- 66) 분승지 조우인은 본디 흥측하고 패역스런 사람으로서, 일생 동안 한 것이 역적 정온을 구원하고 (대역을 비호하며) 어진 스승들을 모욕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본직을 맡아 서궁에 입직했을 때에 회포를 읊은 시는 글자마다 거슬리는 말이며 구절마다 흥측한 내용이니. 分承旨曹友仁, 本以兇邪悖逆之人, 一生所爲, 只救賊蘊, (護大逆)侮賢師而已. 及忝本職, 入直西宮, 述懷作詩, 字字逆語, 句句兇辭. 『광해군일기』 光海 13年 7月 14日 1621年.

歌管은 예뻐던 소리로되/ 長信 宮門을 닳고아니 연단말가/(중략) 乾坤이  
凝閉하야 朔風이 되오부니/ 홀날 떠다흔들 열흘치위 어이홀고/(중략) 天門  
九重에 같길히 아득하니/ 兒女 深情을 님이언제 슬피실고 <자도사>

임의 ‘誓海盟山’을 믿었지만 화자와 임은 헤어져 있는 상태이다. 화자는 자신을 반첩여로 생각하여 장문(장신궁) 지척이 가려져 유량은 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장신궁은 한(漢)나라 허황후(許皇后)가 폐위되어 거처하던 장소이며, 유량은 한나라의 성제(成帝) 유오(劉驚)를 말한다. 새로운 황후 조비연(趙飛燕)의 거처인 소양궁(昭陽宮)에서는 옛날과 같은 노래가 들리는데, 허황후의 거처인 장신궁은 궁문이 닫힌 채 열릴 생각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허황후와 반첩여를 더욱 서글프게 그려낸다. 반첩여는 <자도부>에서 허황후의 폐위를 ‘가슴 아픈지 고(중략) 포대기에 업혀 재앙을 만났도다.’<sup>67)</sup>라고 기술한 바 있다. <자도사>에서 화자가 반첩여의 상황을 기술한 것은 조비연에 의해 폐위되어 장신궁에 갇혀버린 허황후와 경운궁에 유폐된 인목대비의 상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재가 광해로부터 단절된 마지막 공간을 공규라 이름한 것은 허황후의 장신궁과 서궁이 유폐된 경운궁을 ‘공(空)’의 공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유폐된 것도 모자라 하늘과 땅은 응폐(凝閉)되었으며, 거기에다 삭풍까지 불어오니 추위를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화자는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천문으로 가는 길은 아득하고 임은 자신을 언제 쫓 살피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매 순간 임을 기다리며 임이 돌아봐 주기를 바라는 화자와는 다르게 임은 화자의 존재를 잊은 상태로 묘사

67) 가슴 아픈지고, 양록관(陽祿館)과 자관(柞館)이여, 이에 포대기에 업혀 재앙을 만났도다. 痛陽祿與柞館兮. 仍繼祿而離災. <外戚傳下>, 『漢書』.

된다. 아마도 이재가 <자도사>를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가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적대자와 공규를 돌아보지 않는 임, 이 사이에서 존재해야만 하는 이재의 현실이 그가 당면한 실제이기에 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肝腸이 다써거 녀시조차 그쳐시니/ 千行 怨淚는 피되야 소스나고/(중략)  
白日이 無情히니 覆盆에 비칠손가/ 平生 積夢은 다내의 타시로되/(중략)  
眞宰의 處分을 놀드려 무르려뇨/(중략) 출하로 식여더 子規의 녀시되어/  
夜夜 梨花의 피눈물 우러내야/ 五更에 殘月을 씻거 님의즘을 씻오리라.

<자도사>

임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기에 화자는 자신의 간장이 다 썩어서 녀조차 끓어진 상태라 말한다. 반첩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밝은 해가 갑자기 빛을 잃어가더니, 마침내 날이 저문 듯 캄캄해졌구나.(중략) 그럼에도 장신궁의 말류가 되길 부탁하였지만(중략) 임금이 거동하지 아니하였다.’<sup>68)</sup>라고 하였는데, <자도사>에서도 ‘白日이 無情’하여 복분에 비추지 않는 상황을 묘사한다. 공규라는 곳은 임금은 더 이상 거동하지 않는 곳이며, 백일 역시 비추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진재(眞宰)의 처분(處分)’이라 말하는 것으로 그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다고 다짐한다. 다만, 차라리 죽어 자규의 녀이 되어 피눈물로 울며 임의 잠을 깨우고 싶다고 말하는 데, 이는 자규의 녀이 되어야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8) 白日忽已移光兮. 遂掩莫而昧幽.(中略) 奉共養于東宮兮. 託長信之末流.(中略) 君不御兮. <外戚傳下>, 『漢書』.



이처럼 이재는 <자도사>를 통해 자신의 현실이 향규에서 광한궁, 그리고 공규라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와 적대자의 세력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향규는 입을 모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향규(香閨)가 된 것이고, 광한궁은 아마도 이재에게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었을 것이다. 반첩역 역시 증성전(增成殿)에 나아갔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도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도다.’<sup>69)</sup>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재 역시 광한궁에서 입을 만났기에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버려지는 신세가 되어 화자의 마지막 공간은 공규(空閨)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규와 광한궁, 공규의 모든 공간에서 화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던 입은 광해를 풍자한 것이며, 성색에서 청승(靑蠅)이 되어 허물을 지어낸 적대자는 광해의 조정을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재가 마지막으로 거쳐하였던 공간인 공규는 자신의 현실 이면서도 경운궁에 유배된 서궁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기에 <자도사>는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이재의 신세와 광해의 조정을 풍자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재는 1622년 9월 보방되지만, 3년 후인 1625년 5월 생을 마감하게 된다. 태당은 이재의 죽음에 대해 ‘늪에서 감옥(牢狴)에 들어가 형곡의 함정(硯穽)에서 흑독하게 생활하여 병이 심해졌다’<sup>70)</sup>라고 기록하였다. 이재가 세상을 떠난 후 우복(愚伏, 鄭經世)은 ‘충분 쏟아 읊은 시가 죄

69) 증성전(增成殿)에서 융성한 충에 받았도다.(중략)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도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도다. 奉隆寵於增成.(中略) 竊庶幾乎嘉時. <外戚傳下>, 『漢書』.

70) 公老入牢狴. 酷經硯穽. 衰疾轉劇. 越三年乙丑五月三日卒. <右副承旨梅湖曹公墓誌銘>, 『澤堂先生別集』 卷之六.

안이 되었고 사특한 말 간파함이 화근이 되었구나<sup>71)</sup>라며 그가 필화당한 것을 안타까워 한 바 있다. 또한, 월천(月川, 趙穆)은 이재에 대해 ‘때를 만나지 못하였고 운명이 좋지 않았네. 평소에 쌓은 뜻을 품고서 연하 속에 묻혀 지내니 복이 없는 백성들이 슬퍼한들 어찌하랴.’<sup>72)</sup>라고 하였다. 이제는 좋을 때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마음에 뜻이 있었지만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였고, 복 없는 백성으로 광해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IV. 나오는 말

본고는 이재의 작품 중 <출새곡>과 한시 <형제암>을 필화의 매개가 된 피화의 작품으로 보았으며, 선조와 인목대비의 유폐를 소재로 한 <직분사. 기소견>, <제분사승지청벽>과 <자도사>를 풍자를 담은 필화의 작품으로 보았다. <출새곡>은 1616년 경성 판관이 되었을 당시에 창작한 작품으로 세태에 대한 불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형제암>은 광해조에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광해의 형제를 소재로 한 시이다. 두 작품은 피화의 작품으로 해석하였지만, 필화의 매개가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71) 才僧命達古今冤 재주 있어 통달 못함 고금의 원통이나/ 抵死奇窮孰似君 몸 죽도록 기구함이 누가 그대 같으리오/ 忠憤寫宜詩作案 충분 쏟아 읊은 시가 죄안이 되었고/ 談辭看破禍成根 사특한 말 간파함이 화근이 되었구나/ (생략) <挽曹承旨汝益>, 『愚伏集』 卷之二.

72) 時之不遇 命之不滅 卷懷素蘊 零落煙霞 民之無祿 悼如之何. <又(門人 曹友仁)>, 조목(황만기·권영탁 옮김), 『월천집』, 한국고전번역원·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8, pp.594-595.

또한, 이재는 <직분사. 기소견>과 <제분사승지청벽>으로 구금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자도사>를 창작하였다. <직분사. 기소견>과 <제분사승지청벽>은 상반된 공간에 대해 풍자하고 있으며, <직분사. 기소견>은 서궁이 윤희된 경운궁, <제분사승지청벽>은 박쥐와 파리들이 존재하는 광해의 조정을 풍자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도사>는 이재가 거쳐하는 공간과 이재의 신세 변화 및 광해의 조정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규와 광한궁, 공규의 모든 공간에서 화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던 입은 광해이며, 성색에서 청승(靑蠅)이 되어 허물을 지어낸 적대자는 광해의 조정을 풍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재는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시로 읊었으며, 화를 피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필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

- 高敬植, 「曹頤齋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3.
- 강경호, 「이재(頤齋) 조우인(曹友仁)의 가사문학 연구 - 〈출새곡(出塞曲)〉과 〈속관동곡(續關東曲)〉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11집, 영주어문학회, 2006, pp.73-100.
- 권현주, 「流配歌辭에 나타난 世界觀의 樣相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金奉姃, 「頤齋 曹友仁 詩歌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金永萬, 「曹友仁의 歌辭集 「頤齋詠言」」, 『어문학』 제10집, 한국어문학회, 1963, pp.78-97.
- 김영주, 「詩禍를 통해 본 歷史 現實과 그 反芻 - 權譚과 曹友仁의 경우를 중심으로 -」, 『동방한문학』 제68집, 동방한문학회, 2016, pp.267-312.(DOI : 10.17293/dbkcls.2016..68.267)
- 김혜진, 「이재 조우인 가사의 내면의식과 시가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신현웅, 「이재 조우인의 매호 복거와 〈매호별곡(梅湖別曲)〉의 창작의식」, 『국문학연구』 제35집, 국문학회, 2017, pp.233-264.
- 윤호진, 「澤堂의 頤齋詩 批評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제23집, 열상고전연구회, 2006, pp.133-171.
- 이구의, 「頤齋 曹友仁의 〈卽事〉詩에 나타난 外物과 그 의미」, 『사상과문화』 제4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pp.35-64.
- 이재준, 「이재(頤齋) 조우인(曹友仁)의 가사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42집, 우리어문학회, 2012, pp.213-245.
- 조목(황만기·권영탁 옮김), 『월천집』, 한국고전번역원·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18.
- 昌寧曹氏 頤齋公派宗會, 『頤齋先生文集』, 상주군, 1990.
- 최규수, 「〈출새곡〉과 〈속관동(별)곡〉의 작품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온지논총』 제5집, 온지학회, 1999, pp.23-46.
- 최현재, 「戀君歌辭 〈自悼詞〉의 특징과 의미」, 『동양고전연구』 제41집, 동양고전학회, 2010, pp.121-148.

Abstract

# A Study on Written Indictment of Jo Woo-in (Ijae)'s Works

Kwon, Hyun-ju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Jo Woo-in (Ijae)'s works, which were written based on harms he averted and writing indictment he experienced in King Gwanghae's reign. Among gasa works of Ijae, contents of four pieces (<Chulsaegok>, <Jadosa>, <Gwandong Sok Byeolgok>, and <Maeho Byeolgok>) have survived until today. This study focused on <Chulsaegok>, which was based on his appointment as the judge of Gyeongseong in 1616, and <Jadosa>, which was written based on his imprisonment in 1621. In addition, how he averted harms and how he was indicted for his written indictment were analyzed through poem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jae was described as the person who 'was good at writing poems and wrote poems for every event each time it took place' according to 『Records of King Gwanghae』. This study took note of the fact that poems that Ijae wrote for events each time they happened resulted in averting harms or written indictment.

Although <Chulsaegok> and <Hyeongjeam> were works of averted harms, complaints about the world in <Chulsaegok> appeared.

The technology of brothers of Gwanghae, who were driven to death as the subject of <Hyeongjeam>, was regarded as a medium for written indictment. He was implicated in written indictment for his hansil <Jikbunsagi. Sogyeon>, <Jebun Saseung Jicheongbyeok>, and <Jadosa>. <Jikbunsagi. Sogyeon> and <Jebun Saseung Jicheongbyeok> were seen as satirical works of Gyeongbokgung Palace and Gwanghae's royal court.

In addition, <Jadosa> was able to find satire about changes in foreign

affairs and adjustment of Gwanghae according to space. Through this study, Ijae's experience in painting and his work were analyzed.

**Key Words** : Ijae, Jo Woo-in, Writings Indictment, Chulsaegok, Jadosa

권현주

소속 :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사

전자우편 : hjkwon815@naver.com

이 논문은 2021년 8월 21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25일 게재 확정됨.